

세션 3-1장

---

##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

김재현(건국대학교 교수)  
jaehyunk@konkuk.ac.kr

황수철(농정연구센터 소장)  
farp@korea.com

1.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등장
2.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방법
3.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소개
4.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



##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

### 1.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등장

#### □ 로컬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다

-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시장의 기준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하면서, 지역단위에서는 자의반타의반으로 로컬들의 폐지 및 약화라는 쪽으로 사회경제적 흐름이 변화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변동에 지역의 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함.
- 로컬경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의 중심에서 평가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아래 지역에 맞는 경제순환방식을 희생시키는 정책방향을 선택하기 보다는, 글로벌경제와 로컬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함.
- 선진국의 경우, 이미 그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뿐 만 아니라, 지역순환경제에서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,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로컬경제의 영역 속에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함.

#### □ 지역만들기에 대한 정책적 변화 요구와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다.

- 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역만들기는 다양한 정부정책의 지원아래 이루어졌으며, 그 결과, 이를 선도 및 이끌어가는 마을, 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, 우리사회에 지역만들기의 흐름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함.
- 반면, 정책사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용 될 수 있는 틀의 제도화로 인해 ‘지역만들기’는 경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함.

#### 4 지역농협과 지역공동체, 다시보기

-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.
  - 실행적 측면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, 주민대표 등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인해, 정책수혜의 당사자인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일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.
- 지역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틀과 지역의 자율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함. 지역공동체가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여가려는 다양한 노력 속에서 여러 형태로 제공되는 정책수단 중 가장 적합한 정책이 결합되었을 때 지역 만들기의 성공확률도 높아지며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임.
-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대응을 통해 창의적이고 참여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요구되는 때이며, 이를 위해서는 생활자 공통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.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론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비즈니스임.

####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

##### 【정의】

- 커뮤니티비즈니스(Community Business; CB)란,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

##### 【특징】

-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다.
- 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.
-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한다.
- 지역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상품·서비스를 개발·제공한다.
- 지역주민이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- 지속적인 사업 또는 사업체이다.
- 행정으로부터 인적·재정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업이다.

□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다.

- 선진국의 경우, 이미 90년대에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여,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경제순환을 형성하고 로컬경제를 지탱하는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- 일본의 경우, 사업체수 약8천개, 고용규모 3만2천명, 약 2,400억엔의 시장규모를 형성.
  - 영국은 사업체수 약 5만5천개, 고용규모 77만5천명, 약 270억파운드의 시장규모 형성.
- 국내의 경우, 지역활성화의 전략으로서 CB에 대한 개념이 시민사회를 통해 2006-2007년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, 이후 2008년-2009년에 지자체 단위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 로컬단위 사업으로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짐.
- 2010년 들어,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중앙정부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, 생활자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정책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.

<표 1> 부처별 정책비교

	사회적기업	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	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
담당부처	노동부	행정안전부	지식경제부
목표	고용창출	고용창출	지역경제활성화
대상	취약계층중심	일반시민중심	취약계층중심
접근방식	복지적 접근	복지+경제적 접근	경제적 접근
추진방식	사회서비스 생산에 의한 고용창출 정부중심	자원활용을 통한 고용창출 지자체중심	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전문민간기구중심 (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)
담당기관	사회적기업인증 지원기관	교육 및 컨설팅 기관 위탁	중간지원조직육성
법령	사회적기업육성법	-	-

□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의문점이 늘어나다.

- 그동안 다양한 지역만들기 정책들이 등장했고, 이들을 통해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, 그것이 장기적인 성과로 지속되기에는 항상 난관에 부딪쳐 왔음.
  -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새로운 대안 찾기에 여념이 없었으며, 그에 따라 지역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, 커뮤니티비즈니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新 대안으로 다가옴.
-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, 전문가 및 지역 리더, 시민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함.
  - 개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, 이는 지역만들기의 이상향적인 방법론일 뿐, 한국적 상황에 맞춰 실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.
- 의문의 시작점은,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행주체가 생활자이기 때문임
  -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경제순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 스스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,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깨달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.
  -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생활자는 지역만들기의 수혜자일 뿐 실행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이 미숙한 상황.
  -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현실가능성과 성과 판단 또한 생활자가 아닌 생활자의 대표나 주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.

□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.

- 생활자 스스로 지역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와 동기부여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,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. 지금까지

행해져온 정부주도의 지역만들기 정책방식으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현과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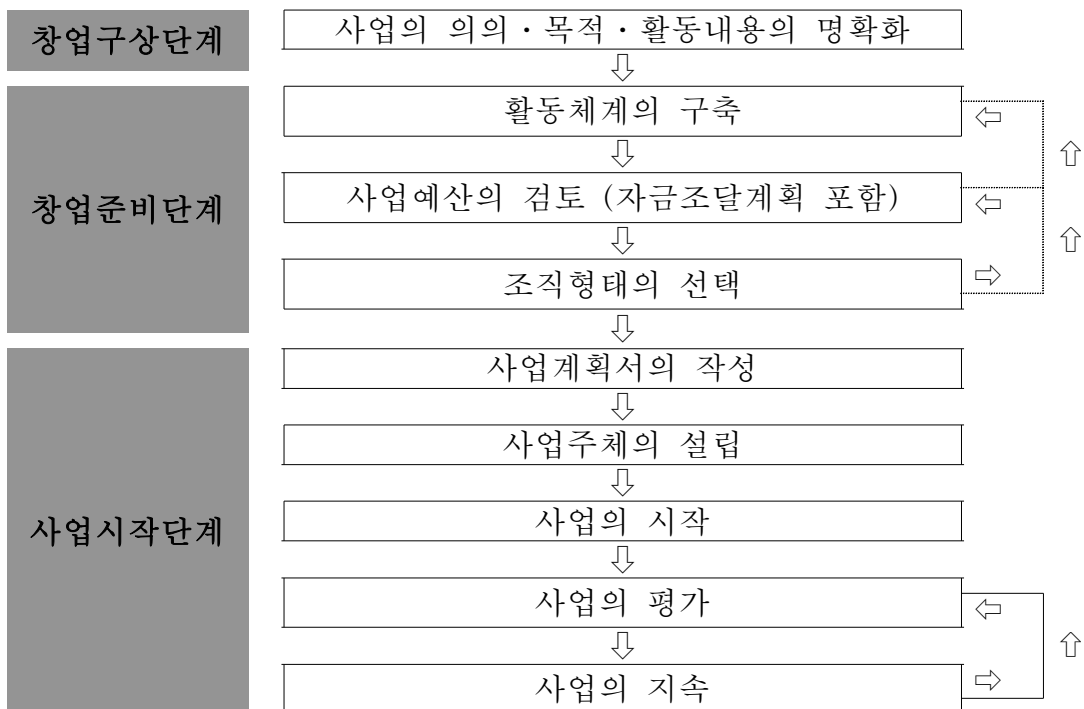
- 실행주체로서 생활자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때임.

## 2.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방법

### 1) 개요

-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실제로 구체적인 그림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, 이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참여에 관심 있는 생활자들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필요함
- <그림 1>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모식화한 그림으로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은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함.

<그림 1>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방법



(1) 창업구상단계

□ CB의 의의 및 목적, 활동내용을 명확화 해야 한다.

-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?
  - CB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함.
  - 이를 명확히 해야만, CB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을 규정 지어, CB를 추진할 때 잃기 쉬운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음.
  - 판단이 어렵다면,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의 의의와 목적,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해 보자.

- ① 의 의 : 활동(지역사회에 대한 문제해결 관점에서)의 가치 및 중요성
- ② 목 적 :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, 활동이 지향하는 바. 활동이 의도하는 것
- ③ 활동내용 :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, 방법, 행동

□ 이에 대한 충분한 공유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.

-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준이자 판단의 기반이 됨.
  -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 및 이후 직·간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과 함께 앞서 설정한 CB의 의의, 목적, 활동내용을 공유함.
  -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려, 다양한 지역주체들로부터의 협력과 노하우도 함께 얻도록 해야 함.

□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라.

-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



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.

- 사업 이후 뿐 만 아니라 사전에 예상 및 기대되어지는 효과를 평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, 주민들이 납득한다면 오히려 사업추진 시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게 될 것임.
-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가능하며, 내용면에서는 경제·사회·환경적 효과로 나눌 수 있음.

## (2) 창업준비단계

### □ 활동체계를 구축한다.

- 역할분담과 책임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전략적인 활동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핵심조직을 구성함.
  - 리더와 구성원(핵심멤버, 일반회원, 서포터; 볼런티어, 노동력 및 그 외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)의 선정.
- 채용조달과 경영마인드 양성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.
  - CB의 조직형태에 따라 채용조달 방법(자본금/회사채/차입금, 기부금/회비/정부보조금/민간기금 등)이 달라짐.
  - 기업에 대한 경영경험이 없는 리더나 구성원일 경우, 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영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음.

### □ 사업예산을 검토한다.

-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크기가 다르므로, 정확히 확인하여 활동 및 사업자금을 확보해야 함.
  - 단년도의 사업예산 및 중장기적인 예산흐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## 10 지역능협과 지역공동체, 다시보기

- 조직의 형태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은 달라지나, 크게 핵심구성원의 출자, 기부금, 회비, 보조금·지원금, 사업수익, 용자·대출, 채권·주식, 시민펀드·사회금융 등이 있음.

### □ 조직형태를 선택한다.

- CB를 추진함에 있어 활동조직의 법적인 형태를 선택해야할 선택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.
  - 설립절차가 비교적 쉬운 임의단체는 법인격 조직에 비해 출자 및 자금조달이 어렵거나, 개인에게 무한책임이 주어지는 단점 및 위험이 수반됨.
  - 법인격으로는 비영리법인, 조합, 유한회사, 주식회사 등이 있음.

## (3) 사업시작단계

### □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.

-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하게 되면,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할 때에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음
  - 창업 구상 및 준비단계에서 설정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로 정리하여 반영
  - 사업·활동 전체의 기본적인 사항과 중장기적 전망, 이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인식 등에 대한 정리
  -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구성원 및 관련자가 공통의 의지를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

- 단체소개 : 명칭, 대표자(직위, 성명), 소재지, 연락처(전화, 팩스, 이메일), 홈페이지
- 활동의 의의 및 목표 : 활동의의, 활동목표
- 활동내용
- 조직체계 : 조직체계도, 세부조직마다의 담당역할
- 취득인허가 (획득·취득예정)      ◦ 주요 거래처
- 관련 사회 환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◦ 사업의 전체상
- 예산계획 : 사업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와 소득전망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업소요비용, 자산현황·향후 취득계획, 예산계획서
- 협력단체 등

## □ 사업을 시작한다.

- 앞서, <그림 1>에서 보여준 사업의 흐름과 같이 사업의 시작단계로 들어가면 사업 발전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일부 피드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야 함.
-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, 지속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함.
- 리더십. 리더 본인의 자각과 리더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.
  -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조직이나, 추진체계가 짜임새 있게 수립되지 않으면, 구성원들의 생각 및 방향성을 통일시키고 활동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움.
- 커뮤니케이션.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례회의의 실시와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, 전자메일 등의 활용을 통해 조직에 이용가능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학습
  - CB의 의식 및 목적, 현황인식, 우선과제 등에 대한 내부적 공유가 있

을 때 구성원의 개인활동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.

- **사업운영.** 구성원 중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필요.
  - 사업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수익확보가 필수이고, 지속화의 위험요소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사업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.
- **동기부여의 유지·향상.** 창업 시 명확화 했던 의의·목적 등에 대한 재확인을 기반으로 동기부여의 유지와 학습을 지속화함.
  -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창업준비때에 열의나 의지, 참여력이 떨어질 위험요소가 큼.
- **CB를 통한 지역효과 확인.** 사업 1년 후, 사업에 따른 지역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, 다음연도의 목표설정 및 활동내용의 대외적 홍보로 적극적으로 활용함.

### 3.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소개

#### 1)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

##### 《 추진개요 》

- 지원사업: 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(RIS)
- 사업명: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
- 주관기관: 건국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단
- 사업기간: 2010년-2013년(3년간)
- 사업재원: 국비 30억원 (10억원/년)
- 지원기관: 지식경제부·한국산업기술진흥원

(1) 기본방향

□ 「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」을 통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CB기반의 구축

-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력양성, 운영매뉴얼 개발,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CB추진기반 구축
  - － 정책연구: CB제품 인증프로그램, CB창업 지원프로그램 등
  - － 운영매뉴얼 개발: 자원조사, CB사업운영, 센터운영, CB성과평가 매뉴얼 등
  - －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: CB창업자교육, 지역파트너교육, 중간지원조직육성 등
  - － 국민적 공감대 형성: 지역포럼, 국제심포지엄, 대학생아이디어경진대회 등

□ 한국형 대표 CB모델의 개발과 전국적인 보급·확산

-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CB모델을 3년간 30사업체를 창출하여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모델로 정착화 및 확산

□ 자발적인 형태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동시에 해결

- 지역자발성에 의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여 커뮤니티단위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
- 잠재되어있던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역시장가치를 창출
- 지역에 대한 투자, 기술과 자원의 활용,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역순환

및 지역고용의 창출

(2) 추진방식

□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단 「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」 구성

- 주관·협력기관이 공동으로 CB센터를 설치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전담 추진함.

<그림 2>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조직도



□ 교육사업을 토대로 한 CB의 관심 증진과 창업의 추진

<그림 3>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의 추진전략



- 3년간 최대 600명의 인력양성, 30사업체의 CB 창출을 통해 대표적인 국내 CB모델을 개발
  
- 단계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CB사업 창업을 지원 및 관리
  - － 입문과정…창업기본과정…<창업>…해외연수…창업심화과정…모니터링

(3) 추진일정

사업지원	<b>CB시범사업 공모</b>	전국단위 자유공모 실시	7월	
	<b>강사진 워크숍</b>	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- 인원 : 10명 - 시간 : 1박 2일, 12시간, 총 2회	8월	
	<b>지역설명회</b>	시범사업 공모 소개 및 교육과정 참여유도 - 전국 4개권역에서 실시	8월	
	<b>CB 입문과정</b>	CB사업의 저변확대, CB발굴 기회제공 - 대상 : CB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, 단체 - 인원 : 전국 4개권역 (권역당 40명, 총160명) - 시간 : 당일, 6시간	연중	
	<b>지역포럼</b>	CB개념의 확산 및 공론화 - 대상 : 지역전문가, 지역·기관파트너, 행정(공무원) - 인원 : 전국 4개권역 (권역당 60명, 총 240명) - 시간 : 당일, 4시간	9월 ~	
		<b>CB 시범사업 선정</b>	10개 사업 선정	9월
	<b>CB창업 기본과정</b>	CB시범사업자의 사업실행을 위한 준비과정 - 대상 : 10개 사업선정 대상자 - 인원 : 10팀×3인 - 시간 : 2박3일, 24시간, 총 2회	9월	
		<b>지역/기관파트너 워크숍</b>	CB시범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 - 대상 : 지역/기관파트너 - 인원 : 30명 - 시간 : 2박3일, 16시간	10월
	<b>CB창업</b>	교육을 통한 사업준비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- RIS연구진, 지역파트너를 통한 하드웨어/소프트웨어의 사업지원	9월 ~	
	<b>해외연수</b>	CB창업분야별 선진사례 심층분석과 한국형 CB모델 연구 - 대상 : CB시범사업자, CB RIS연구진 - 인원 : 30명 - 시간 : 3박 4일, 2코스	11월	
	<b>CB창업 심화과정</b>	CB시범사업자의 사업실행능력의 강화 - 대상 : 10개 사업선정 대상자 - 인원 : 10팀×3인 + a (총 30명) - 시간 : 1박2일, 12시간, 총 1회	11월	
		<b>지역/기관파트너 워크숍</b>	CB 중간지원조직 육성 - 대상 : 지역/기관파트너 - 인원 : 30명 - 시간 : 2박3일, 16시간	12월
		<b>CB 대학생 아이디어경진대회</b>	청년층의 CB에 대한 참여확대 - 대상 : 대학생	1월
	<b>지역포럼</b>	국제심포지엄의 개최 - 국내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	2월	
		<b>강사진 워크숍</b>	교육평가 및 교재 보완 - 인원 : 10명 - 시간 : 당일, 6시간, 총 1회	2월
<b>CB사업 관리 및 평가</b>	사업실적의 점검과 관리, 평가 및 모니터링	3월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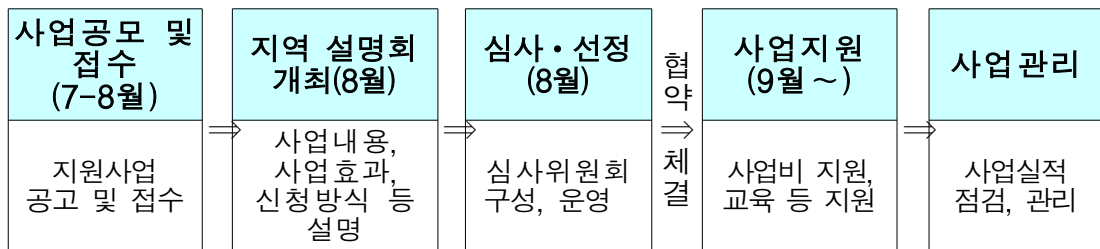
(4) 2010년 CB시범사업 지원현황

《 추진개요 》

- 사업규모 및 기간: 10업체 지원, 8개월('10. 9 ~ '11. 4월)
- 사업재원: 국비 4억원 (4천만원/1사업체당)
- 지원대상: 커뮤니티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조직

□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여 매년 10개사업체씩 지원

<표 2> CB 시범사업 절차



□ 사업유형

○ 대상사업

- 지역자원인 1차생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해서 행하는 사업
- 지역자원인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
- 지역자원인 광업(鑛業)자원 및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
- 지역자원인 관광자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
- 지역소상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

-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
-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
- RIS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- 양성교육 : 입문과정 / 창업기본과정 / 창업심화과정 / 해외연수
- 사업지원 : 관련 정보제공, 컨설팅지원, 필요재료 구입, 인력 연계, 갈등 조정 등

□ 기대효과

- 지역 내 새로운 지역경제체계의 구축가능성 제시
- 30사업체 창출을 통해 최대 300명의 고용창출과 지역 내 약 15억 원의 매출증대 기대

2) 농림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(안)

(1)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개념

-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거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
- 목적 :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(지역성+공익성)

- 구성 :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(공동체)
- 운영 :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(수익성)
- 형태 :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농어업법인, 농협 등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(법인성)
  - 마을단위 법인, 들녘별 경영체, 마을어업회사도 각각 농어촌공동체회사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

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 법적 지원근거 마련('09.11.27 국회제출)

\* (법 제19조의2 신설)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고, 사업의 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별도 규정

-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심사를 거쳐 공동체회사 중간지원 조직(보육센터)에 등록된 조직으로 한정하여 관리
  - 등록된 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활동내용을 웰촌포탈([www.welchon.com](http://www.welchon.com))에 게재하는 등 홍보 추진

(2) 유형별 모델

□ 농식품 산업형

-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
  - (예시) 마을공동 전통식품제조, 로컬푸드,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, 농가 레스토랑 운영, 친환경 농자재 생산, 지역공동 마케팅 등

□ 도농교류형

- 도시민의 농어업·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
  - (예시)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, 농어촌체험관광 네트워크, 경관 및 환경 유지·보전사업, 마을단위 휴양법인, 문화공방 등

□ 지역개발형

- 생활환경개선, 지역역량강화 등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
  - (예시) 읍·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, 시·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, 지역경제 디자인 센터 등

□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

- 노령화, 농어촌의 분산거주 등에 따른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  - (예시) 주거복지센터, 통합·거동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, 반찬배달, 노인 복지센터, 방과 후 공부방 운영,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등

□ 복합형

- 위의 네 가지 유형을 혼합 및 지역공동체 유지·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
(3) 지원방안

## □ 다양한 농어촌 공동체 조직의 법인화 유도

○ 농식품 생산·유통·가공, 지역개발 등 관련 사업은 법인에 우선 지원

- 농업법인 설립·경영상 특별한 정책자금 우대지원은 없으며, 개별사업 지침에서 일반 농가와 동일(유사)한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

⇒ 전문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해 법인화 유도

\* 광역클러스터,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,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등은 법인에 대해서만 지원

○ 사회적기업, 시니어창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

-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(노동부), 자활사업·노인일자리 사업(보건복지부), 시니어창업지원단사업(중소기업청) 등

## □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

○ 세제지원

-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에 따라 농업법인, 사회적기업 등으로 인증받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유도

\* (농업법인) 농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,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가능

\* (사회적기업) 소득세·법인세 감면,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은 소득의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 인정 등 혜택 가능

-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운용 실태를 평가하여 필요시 “(가

칭)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에 관한 법률” 제정 방안 검토

○ 4대보험 지원

- 농어촌공동체회사에 관련사업비 지원 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

\* “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”시 4대 보험료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

□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신규 추진

○ 지원대상

-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

\* 농어촌공동체회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에 신청

○ 도지사가 시·군이 건의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선정 및 지원(우리부가 심사기준 시달)

- 공익성, 지역주민·귀촌자 참여도, 자립성·지속성, 수익환원정도 등 평가

\*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평가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 가능

- 도에 행정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\*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며, 정부지원은 우수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('12년까지 50개 사업)

○ 사업주체: 시장·군수

- 시·군의 농정관련 부서(농업기술센터)에서 집행하도록 하고, 농어촌 공

동체회사 관련 담당자를 지정토록 유도

○ 지원내용

-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, 경비, 컨설팅, 교육비 등 지원

○ 지원조건

- 재원: 농특회계

- \* 개소 당 연간 최대 5천만 원(국고 50%, 지방비 50%) 수준 지원 검토

- \* 시설, 장비 등은 우리부의 관련 사업비로 우선지원

- 지원기간: 최장 3년(매년 성과 평가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)

- \* 지원 후 평가결과 우수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

□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○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지원

- 공동체회사 창업 상담, 정보제공, 자원·기술 중개, 인재육성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

- 일반기업, 출향인사 등과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하고, 「1사1촌운동」을 「1사1공동체회사」로 발전 유도

- 초기단계에는 도시민 귀촌 활성화와 연계하여 1~2개 보육센터를 시범 지정·운영하고, 성과평가 후 지역단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

\* 농어촌공사의 농산업·도농교류지원본부를 독립 법인화하여 기능 부여

\* 장기적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

○ 농업·농촌 관련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유도

- 공동체회사 개요, 사업계획서 작성, 조직 및 회계관리, 홍보·PR 등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
- 농업연수부, 농업기술센터,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, 농과대학, 농협 연수원 등에 교육프로그램 개설(프로그램 공모)

□ 홍보·확산 지원

○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회, 워크숍, 세미나 등 개최 확대 및 우수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유도

- 공무원, 마을사무장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추진하여 인식 전환
- 지역사회 활력증진에 기여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TV 다큐멘터리 제작·방송, 신문 특집 보도 등 유도

○ 우수 공동체회사 창업 및 운영 경연대회 개최 및 농어촌 산업 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 마련

□ 귀촌인력 활용방안

○ 웰촌포탈 및 귀농·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제공

○ 도시-농어촌 연계하는 인재매칭시스템 구축하여 도시-농어촌 통합적 관점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유도



- 직장 은퇴 후 생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동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유도
- 은퇴교사, 예술가, 기술자 등 농어촌이 필요로 하는 경험 있는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
- 도시민을 통해 도시에서의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및 마케팅 강화

#### 4.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

##### “생활자가 주인이 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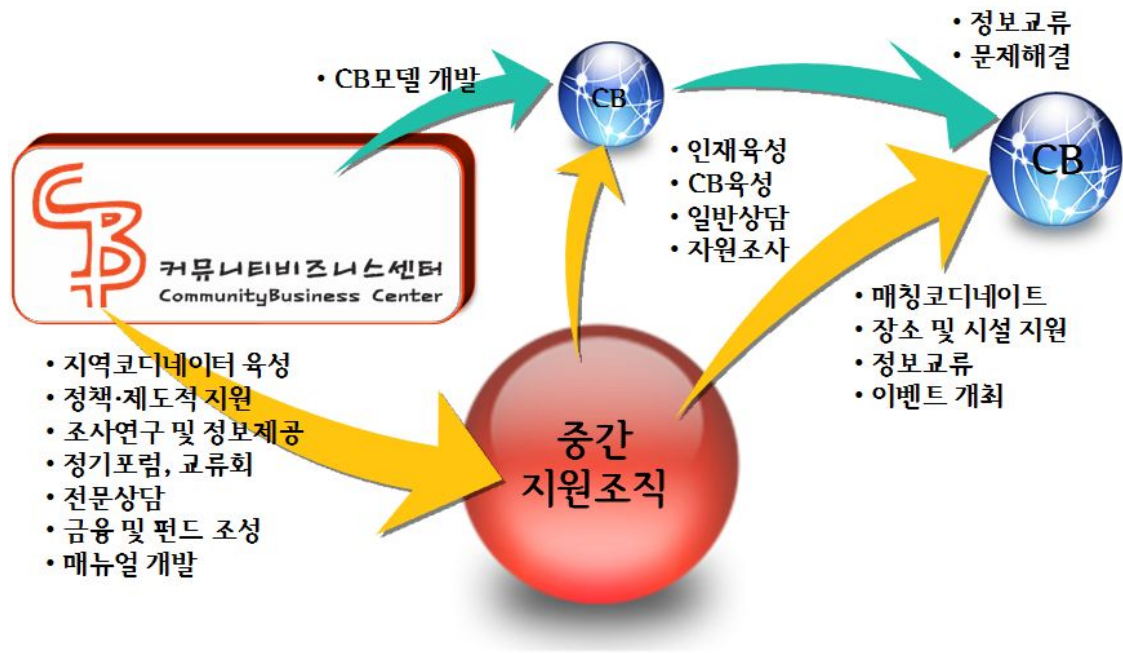
-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태의 논의구조 및 문제해결방식이 필요하다.
  -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비즈니스측면만 보면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임. 그나마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가치를 채워주기 때문임
  - 기존의 정부정책을 지원받는 형태로는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의 가치형성이 어려우며,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립도 불확실함
  - ➔ 생활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원하며, 공공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 기회를 주었을 때, 비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됨
-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시급하다.
  - 지역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언가 행동에 옮기려 할 때,

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, 효과성은 커질 것임.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행정과 주민, 시민사회, 지역기업 등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하지만,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맡아줄 수 있는 주체의 부재 및 능력의 한계

-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협력, 기획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

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은 행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유연성 있게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.

<그림 4>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



□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재편이다.

- 커뮤니티비즈니스는 ‘나’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라 ‘지역’에 필요한 일자리로서, 기존의 일자리창출사업과 비교 시 고용창출의 수는 크지 않음.

- 그러나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고용만들기와 일자리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, 지역경제적인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기존의 일자리창출사업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.
-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재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함.
- ➔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, 지역수요에 맞는 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함.

<그림 5>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추진

